

엄쌤이 전하는 TOEIC® SECRET 공부 비법

1. 철저히 자신을 이겨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만이 뭐든 이뤄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다들 자기 자신을 이기면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 그러나 정작 이것이 무슨 뜻인지 80%이상 이해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기로 맘먹었을 때 그것을 다른 것에 방해 받지 않고 끝까지 시간을 지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부 할 때 좀 쉬겠다고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10 분만 자야지 하는 생각들이 발생하였을 때 그대로 하면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이다.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 게임만 하고 공부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최소 2 시간은 게임에 몰두한다. 그러면 이미 많은 집중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체력과 집중력이 온전히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또한 잠시만 자야지 하는 생각은 그나마 낫긴 하지만 이건 엄청난 착각이다. 잠시만 자야지가 5~6 시간을 자버리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이러한 외부의 유혹들을 철저히 뿌리치면서 끝까지 한길만 파고드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공부하다가 쉬어야 한다. 이럴 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 바깥바람을 쐬고 오면 집중력도 더욱 발휘 할 수 있고 체력도 웬만큼 보강된다.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집중하다 보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산책하면 시야를 처음처럼 넓힐 수 있다.

2. 휴대폰은 꺼둔다. 중요한 전화가 올 것만 같아서 휴대폰을 off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절대로 전화 안 온다. 정말 중요한 전화는 휴대폰을 꺼놓는다고 해서 내 귀에 안 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핑계다. 공부 한 참할 땐 친구 없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 된다. 유혹이 많이 줄어들니까. 공부 잘하면 없는 친구도 생긴다. 철저히 자기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루 4 시간이라는 공부 시간을 철저히 지켜라. 하다 보면 힘들고 짜증나고 내 머리는 정말 돌머리인가 보다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게 정상인이다. 멘사라는 천재(IQ150 이상)들이 들어가는 클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고 짜증나고 자기 자신을 도리어 욕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시간을 엄수 하고 공부한다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드는 생각은 내가 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이 붙고 뭐든 다 잘 할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이라고 말한 것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일주일 어떤 이는 한 달 이상 공부하고 나서 이러한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어렵다. 하지만 꾸준히 4 시간이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4. 체력관리 또한 중요하다. 공부는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 대체로 잘한다. 운동을 항상 하라. 시간이 정 안 나는 사람이라고 해도 2 일에 1 시간씩은 꼭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장기 싸움에서 뒤처지게 된다. 공부만 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다. 체력관리가 중요하다. 일주일 뒤에 혹은 이주일 뒤에 분명히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5. 밥은 거르지 말고 먹어야 한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꼭 밥을 먹고 공부를 한다. 왜냐하면 밥에 들어있는 성분이 집중력을 높여주고 체력적으로도 보강을 시켜주고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작은 차이 같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이런 것 정말 무시하면 안 된다. 공부는 장기간 하는 것이다. 하루 이틀 할 공부라면 한 끼 두 끼는 굶어도 좋지만 한 달 이상 지속될 공부라면 이런 상식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몸에 습관화 하는 것이 좋다.

6. 주변 환경을 정리하라. 공부하기 전에 주변 환경을 안정시켜 놓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자신이 차분해져 안심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보면 그 사람은 여자인데 영어공부 할 때 방안에 있는 시계란 시계를 모조리 치워버린단다. 짹짹하는 소리가 거슬려 집중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짹짹하는 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처음엔 들리다가 어느 정도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란다. 이만큼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7. 파트별 공략 법을 말해 주겠다. 초보들은 무작정 4 시간만 하면 된다. 하지만 정말 초보들은 하루 8 시간씩 한다. 하루 4 시간, 한 달이면 충분하다. 욕심 부리지 마라. 8 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은 토익 점수 800 이상 나오는 사람들이 부족한 공부를 하기 위해 하는 시간들이다. 300~400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4시간이면 정말 충분하다. 단 한 달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part 1 은 받아쓰기를 하라.** 약 한 시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part 1 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건 늦어도 2 주정도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 10 회 듣기 전까지 해답지를 보지 말되 10 회 반복해서 들었는데 그래도 안 들리면 해답지를 보고 틀린 부분을 체크한 다음 다시금 들어본다. 이러면 말하기 시험에서 사진보고 말하기에서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

8. part 2 도 받아쓰기를 해라. 여기는 part 1 처럼 짧지 않고 약간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야 한다. 방법은 part 1 과 똑같이 한다. 대화이기 때문에 말하기시험에 아주 유용하다.

9. **part 3 는 일단 들어라.** 그리고 머릿속으로 해석하라. 하지만 정 못 알아들겠다 싶으면 답안지를 한번 훑어봐라. 그리고 다시 들어봐라. 그래도 모르겠으면 다시금 해답지를 봐라. 그리고 다시 들어봐라. 이것을 충분히 반복한다. 어느 정도 뜻이 이해가 되었다면 따라서 읽어라. 원어민 속도와 읽는 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반복하라. 그러면 여유가 조금 생긴다. 그 다음 혼자 상상하면서 말해봐라. 이때쯤이면 반복했던 것들이 다 외워졌을 것이다. 완벽하게 외워진 건 아니라 처음엔 막힌다. 하지만 5 번 정도 혼자 해보면 책 안 봐도 될 정도로 된다. 이걸 한 달 하면 30 개 지문이 외워진다. 토익 듣기 점수 진짜 장난 안고 확 올라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10. **part 4 는 part 3 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것은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외운다는 것은 조금 힘들다. 이걸 딱 15 번만 반복한다. 15 번이 많아 보이지만 금방이다. 처음에 듣고 뜻풀이하고 답안지 보고 다시 듣고를 반복하면 웬만하면 7 회독이 된다. 그러니 6 번만 더 들으면 된다. 그럼 웬만한 건 다 외워진다.

11. **많은 분량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루에 딱 3~4 개의 지문만 해라. 이것도 많다면 2 개만 해도 된다. 그래도 충분히 점수는 오른다. 맘을 급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점수는 안 오른다.

12. **반드시 복습을 해야 하는데 자기 전에 해라.** 이걸 꼭 해야 한다. 자기 전에 딱 한번만 듣고 자라.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않지만 저녁때 한번 복습해 놓으면 일주일 이상 기억이 난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저녁에 한번 듣지 않으면 다음날이면 잊어먹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암기력은 반복하지 않았을 경우 12 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이해를 했다면 24 시간이 간다. 그래서 답안지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part 1, 2 는 가급적 답안지를 나중에 봐야 한다. 긴 지문만 답안지 보고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들어주면 일주일이상 기억력이 살아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날 어제의 분량을 다시 한 번 상기 한다. 잊어버린 게 있다면 다시 외워라.

13. **일요일은 반드시 쉰다.** 사람이 365 일 일만 할 수 없듯이 쉬이 필요하다. 토요일 3 시까지만 공부 하고 일요일 7 까지 충분히 쉬어 준다. 잠만 자지 말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요일 7 시부터는 저번 주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 일주일 분량이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1~2 시간은 간다. 그리고 쉰다.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 하면 된다. 이와 같이 13 가지만 철저하게 지켜준다면 한 달이 내에 듣기 점수 달성은 쉽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중간에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외부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면 당장에 포기해라. 만약 한 달 고생을 철저하게 한다면 정말 다른 세상이 보일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자신을 믿어라. 한 달 뒤 part 1,2,3,4 지문을 들었을 때 술술 들리는 신기한 기쁨과 원어민 영어발음까지 술술 들리는 신기한 현상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